

업계동정

現代重工業(株), 불가리아 변압기공장 인수

現代重工業(株)가 불가리아의 국영 변압기 업체를 인수, 국내 중전기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동사는 최근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위치한 초고압 전력용 변압기 생산업체인 「엘프롬트라포社」를 3백만달러에 인수해 「현대-엘프롬트라포社」로 이름을 바꾸고 정상 운영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이 종업원과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불가리아 유일의 이 변압기 업체는 7만4천여평의 부지위에 최고 4백20kV급 초고압 변압기까지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다.

「엘프롬 프라포사」는 지난 1950년 설립된 뒤 연간 3천MVA의 변압기를 생산해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과 이집트 레바논 등지에 수출했으며 지난해 1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설비 인수에 이어 4백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현지 공장의 정상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 이 공장을 유럽과 중동지역을 공략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고 오는 2000년까지 매출규모도 3천만달러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喜星電線(株), 정보통신분야 집중 육성

喜星電線(株)(代表: 裊恩出)가 정보통신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희성전선은 지난 9월 24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기존 전선사업과 전선연관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21세기 정보사회를 대비해 정보통신사업에 적극 진출키로

하는 등 제2의 창업을 위한 「도전 2005」 중장기 비전을 채택했다.

지난 57년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PVC케이블을 생산함으로써 전선분야에서 탄탄한 바탕을 다진 희성전선은 지난해 일본의 쇼와전선과 광통신케이블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

을 체결, 광통신케이블 시장에 진입했다. 동사는 올해 광섬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전주공장에 1백억원을 투자, 내년까지 광섬유 제조설비를 설치해 자체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희성전선은 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추

진하고 있는 전선연관사업의 경우 자체 연구 개발 및 세계일류 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정보사회를 대비해 21세기에는 LAN 등 정보통신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極東電線工業(株), 극동허벨 파워시스템사 설립

極東電線工業(株)(代表: 崔炳哲)가 미국 허벨그룹과 애자·피뢰기·컷아웃스위치 등 전기제품 제조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극동전선은 그동안 검토해오던 전기제품 제조를 위해 미국의 전기제품 기업군인 허벨사와 가칭 극동허벨파워시스템사를 50대 50의 지분으로 총 4백50만달러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조선히텔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새로 설립되는 극동허벨파워시스템사는 허벨사가 고품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애자·피뢰기 등의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폴리머 화합물로 된 제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기존 애자류는 자기제품인 반면 극동허벨이 생산할 폴리머애자는 품질 및 내구성

·취급용이성이 뛰어나 미국에서도 20여년간 우수성이 입증돼 왔으며 한국전력도 최근 관심을 갖고 일부 선로에 설치·사용하고 있다.

한편 극동전선은 그동안 선박용·전력용·통신용 전선을 생산해 국내외에 공급해오다 최근 사업다각화를 추진, 허벨그룹과 전기제품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동사는 이번 합작사 설립에 앞서 올해 초 LAN용 배선기구와 관련, 마케팅 제휴를 맺은 바 있다.

극동전선은 이번 합작사 설립을 계기로 해외의 우수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내 전기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株)泰進電氣, 자동차 설비 갖춘 제2공장 준공

UPS(무정전전원 공급장치) 전문생산업체인 (株)泰進電氣(代表:李浩哲)는 최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석우리에 최신식 자동생산설비를 갖춘 제2공장을 준공, 재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태진전기가 새로 준공한 제2공장은 총 19억원을 투입해 건평 1천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안에 중소기업체로서는 드물게 체버, 진공함침기, 토이스터 이동기, 항온 항습시험기 등 각종 최신식 생산설비등이 설치돼, 앞으로 신제품 개발은 물론 품질향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태진전기는 제2공장에 음향설비를 갖춘 휴게실, 기숙사, 녹지정원 등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직원 복지향상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이호철사장은 『이번에 최신식 생산설비를 갖춘 현대식 공장준공을 계기로 더욱 더 완벽한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내 제일의 무정전전원 공급장치를 생산,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품질의 균일성 ▲생산성 향상 ▲관리의 일원화

를 통한 품질경영 정착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와함께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과감히 탈피, 앞으로는 드넓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히 나서 수출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및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현재 CE마크를 획득했으며,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무정전전원공급 제품의 적기 공급을 위해 전 직원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국내부문에서도 한국이동통신으로부터 1천5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엘리트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수주, 관련업체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태진전기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엘리트 사업」은 전국 전화국의 정전사고 및 운용상태를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이다. 현재 태진전기는 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마지막 시험단계를 테스트하고 있다.

최신식 생산설비를 갖춘 제2공장 준공을 통해 전 직원이 완벽한 품질관리와 고객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태진전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三和技研(株),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추진

모터보호용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업체인 三和技研(代表: 金仁錫)가 해외 현지법인을 잇따라 설립, 글로벌 경영에 나선다.

동사는 오는 2000년 해외 현지법인 7개에 해외대리점망 1백개점을 구축하고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다는 목표아래 유럽 인도 미국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삼화기연은 이에따라 올해는 아세안 블록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 삼화엔지니어링을 설립, 호치민시 탄투안 수출공단에 1백 50만달러를 투자해 현지공장을 설립한다.

올해말 완공 예정인 베트남 공장에서는 계전기를 월 3만개 6억원어치 가량 생산, 베트남과 필리핀,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게 된다.

이와함께 인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현지 관련 전시회에 출품해 시장성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중에 법인 설립을 추진중이다. 또 유럽과 미주시장을 겨냥, 현지 세일즈 조직을 구성중이며 미국과 유럽에 현지법인을

내년중에 설립할 계획이다.

기존의 중국 현지법인은 현지 영업대리점 확충에 주력, 현재 13개인 대리점을 올해말 까지 30개로 늘려 중국 각성마다 영업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국에는 지난 '93년 천진시에 한·중합자회사를 설립했으며 '95년에는 북경에 현지법인을 세웠다. 삼화기연은 이를 통해 올해 4백만달러 수준인 해외수출 물량이 내년에는 8백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삼화기연은 또 해외현지 영업점에 대폭적인 영업지원과 독특한 리베이트제도를 도입, 빠른 시간에 해외법인 수출목표 1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화기연은 지난 '81년 모터보호용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개발하면서 설립된 전문기업으로 매출규모는 1백20억원이며 해외에 16개의 현지 대리점을 두고 있다.